

PGA 투어 일정 조정안 발표 ... 6월 11일 재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2019-2020시즌을 재개된다.

PGA 투어 사무국은 16일 남은 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원래 5월 21일 개막하려던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은 3주 뒤인 6월 11일 시작하고, 이 기간에 열릴 예정이던 캐나다 오픈은 취소됐다.

이어 슈와브 챔피언십 이후로는 RBC 헤리티지(6월 18~21일), 트레블러스 챔피언십(6월 25~28일) 등이 차례로 열린다. PGA 투어는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부터 4주간 열리는 대회는 무관중 경기로 치를 계획이다.

정규시즌을 마감하는 윈덤 챔피언십은 8월 13~16일 열린다. 이후부터 플레이오프 대회인 노던 트러스트(8월 20~23일), BMW 챔피언십(8월 27~30일), 투어 챔피언십(9월 3~7일)이 열려 시즌 최강자를 가린다. 한국 유일의 PGA 투어 대회인 더 CJ컵은 10월 15일부터 나흘간 제주도에서 펼쳐진다.

2020-2021시즌은 2019-2020시즌이 9월 7일에 끝난 지 불과 사흘만인 9월 10일 세이프웨이 오픈으로 막을 올린다.

한편 코로나19 때문에 2019-2020시즌에 치러져야 할 메이저 대회 US오픈(9월 17~20일)과 마스터스 토너먼트(11월 12~15일)가 2020-2021시즌에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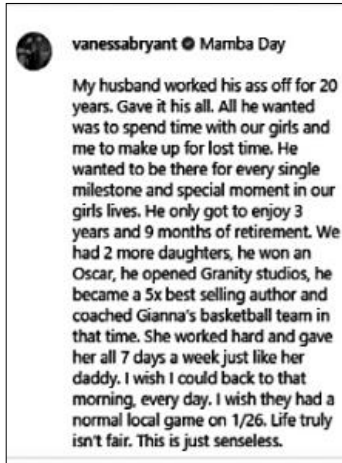
올해 4대 메이저 대회는 4월 열릴 예정이던 마스터스가 11월로 미뤄졌고 5월 PGA 챔피언십은 8월, 6월 US오픈은 9월로 각각 순연됐다. 7월에 열리기로 되어 있던 브리티시오픈은 취소됐다.

코비 은퇴 4주년 “그날 아침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경기를 치른 후 4년이 되는 지난 14일, 그의 아내 바네사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SNS에 ‘맘바데이’라는 제목의 코비를 회상하는 글을 올리며 그를 추억했다(사진).

코비는 지난 2016년 4월 14일 유타 재즈와의 홈경기에 출전했다. 현역생활을 마무리 짓는 은퇴경기였다. 이날 코비는 은퇴경기에서 60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라는 기록을 남기며 화려하게 코트를 떠났다. 코비가 은퇴경기서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이끈 후 남긴 ‘맘바아웃’이라는 마지막 인사는 여전히 농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코비는 지난 1월 27일, 헬리콥터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전 세계 농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 헬리콥터에는 농구선수의 길을 걷고 있던 코비의 둘째 딸 지아나도 타고 있었으며 그도 코비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바네사는 “남편은 2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뛰었고, 은퇴 후에는 항상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길 원했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 후 누린 일상은 단 3년 9개월이었다.”며 “나는 매일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사고가 일어났던 1월 27일에는 NBA의 모든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렸어야 했는데…… 지금의 일상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코비를 추모했다.

최지만 “한국에 돌아와 심리적으로 편안”

메이저리거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훈련하고 있는 최지만(사진)이 “한국에 돌아온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며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 정도에 팀과 영상통화를 한다. 몸 상태를 보여주고,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등을 말한다.”며 “(추)신수 형이 메이저리거에 관한 정보를 빨리 얻고 있어서 자주 연락한다.”고 덧붙였다.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지만은 지난달 24일 입국한 후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끝냈다. 최지만은 이날 인천에 있는 한 실내 야구연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집에서 푹 쉬었다.”며 “지금은 천천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팀 훈련 시설이 폐쇄돼 훈련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 귀국 결정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탬파베이 구단은 꾸준히 최지만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만은 “한국 시간으로 밤 12

최지만은 코로나19로 메이저리거 개막이 미뤄진 상황을 두고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받아들여야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올해 훈련도 열심히 하고, (시범경기에서) 감도 좋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최지만은 코로나19로 연기된 올림픽 야구에 대한 입장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는 운동선수로서 항상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이라며 “프리미어12, WBC에서도 다 국가대표로 나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팀과 계약을 할 때 국가대표 팀에 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